

상징적 의자 디자인과 사회성 고찰

— 고대~중세시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Symbolic Chair Design in Social Relations

조현미*/Cho, Hyeon-Mi

Abstract

In today's man's domestic environments, the development of furnishings in their various shapes and functions is as complex as human lives. Architecture, Interior, and Furniture, each one of these have the relationship closer and closer to the direct human environments.

In this study, by choosing the theme of sitting, the transformation of man's behavioral models would be examined in sociological terms. By viewing the chair as an emblematic objects made for more than just sitting, the chair has revealed the relations of man with his environ-

ment since the history of furnishings began. Qualified architects and designers know that chairs are no longer the objects, but the primary subject of furnishings.

Through this examination of the emblematic typologies of periodic chairs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culture,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olitics, religions, monarchies, societies, and etc., the meanings of the designs could be find and which could be the resolutions for the future innovative design. These re-found or re-created 'meanings' in the history of design could create another typology for the future reality.

I. 연구의 목적

1.1 문제의 제기

동서양을 포함한 5000여년에 이르는 방대한 가구디자인의 역사속에서의 무수한 작품들을 이해하고, 선택하며, 21세기를 향하는 오늘의 혼란스럽기까지한 디자인 사조들의 범람과 재등장속에서도 보다 창조적인 디자인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세기말적인 강박관념마저 가지게 된 현실에서 문제의 제기를 하고자 한다. 단순히 시간적 순서대로 혹은 건축의 보다 큰 사조대로, 실내공간의 역사와 비교 연구하고 가르치기에는 디자인의 주체자인 디자이너로서의 의식이 살아있지 못한 단순 사실 혹은 지나간 발자취만 더듬는 결과를 자초함을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동기는 대학에서 가구디자인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대의 과학논리적 주관을 가지고 접근하여 역사교육을 하기위한 다양한 디자인 사조의 사회적 의미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미래의 디자인 방향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1.2 연구의 관점

현대인의 거주공간속에서의 생활의 다양함에 의해 발전해온 가구류의 종류는 그 생활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 변모해 오면서 발전해온 환경, 특히 건축과 실내, 그리고 가구라는 인간에게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직접적인 거주환경 속에서, 이 연구의 주제로 선택한 의자는 단순히 하나의 물체로서의 의자라는 의미를 넘어선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수많은 가구류의 종류속에서 의자가 갖는 사회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범하기 쉬운 관점의 오류로서, 건축→실내→가구 라는 주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대화적인

대등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속의 디자인이라는 관점을 항상 견지한다. (가구를 독립적인 예술의 한 장르로서 추구하는 근자의 경향도 있기는 하나, 어디에 어떻게 놓여지든지 가구는 그 기능을 하게되므로 하나의 독립된 예술품으로만 취급될 수는 없다.) 가구디자이너들은 가구를 미적 혹은 기능적 오브제로서 환경과 분리취급하는 일차적 차원을 벗어나야 하며, 이는 가구가 — 특히 의자가 — 인간신체와 직접적 접촉이 있고, 더 나아가 환경을 구성,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과 실내디자이너 또한 가구를 단순히 환경의 부속물로서 가벼이 생각하고, 쉽게 디자인하는 오류를 범해온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의자가 가지는 밀접한 의미는 제2의 신체, 즉 신체의 연장 혹은 보완으로까지 취급될 만큼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동시에 심리적으로 사회적 관계 정립의 역할 혹은 대화유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더 나아가 민족 문화적 의미인 역사성까지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인간과 거주환경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

1.3 의자디자인 연구의 목적

의자란 무엇인가? 현대인에게 가구 특히 의자가 가지는 의미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인 페리ერი(Anna Castelli Ferrieri)는 '의자가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하나의 상징적 오브제' 라고 하였으며, '우리의 앉는 방법이 지구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contexts)을 가장 명백히 직접적으로 표현한 행위'라 하였다. 의자는 '행위의 유형들의 변모'를 지적해 주는 한 잣대 혹은 좌표의 역할을 해 왔다.²⁾ 의자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의 변모를 살펴봄은 단순히 의자디자인의 변천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1)I.C.A., The Modern Chair, I.C.A., p.4

2)Anna Castelli Ferrier, Interface della Materia, Domus Academy, pp.26 - 27

*정회원, 부천전문대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가진다. 현대의 정보홍수 속에서 종종 상반되거나 모순되기 까지 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호들(signal)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하는 혁신적 디자인(innovative design)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1.4 의자디자인 연구의 범위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에서 거주성(domesticity)이란 큰 주제아래 기술적 발전으로서의 의자디자인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디자인 결과를 발표한 페리어리의 연구에 의하면, 의자는 하나의 유형학적혁신(a typological innovation)이었으며 또한 인간행위 형태의 변화를 지적해주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고 한다.³⁾

만약 디자인이 현대의 혼란한 무한정보의 홍수속에서 제한 요소들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relations), 유형(typologies)들을 찾아내는 것에 디자이너들의 영감이 집중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새로운 과학적 접근법과 완벽히 맞아진다. 금세기 가장 뛰어난 과학적 발견이라는 카오스(Chaos)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무질서 현상'이라는 하나의 절대적 우주법칙으로는 풀수 없는 카오스가 있고, 이러한 카오스는 안정과는 거리가 먼 끊임없이 변모하는 새로운 유형의 질서를 창조한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 디자인은 바로 새로운 유형의 질서 즉, 보다 복합적 방법으로 물질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이것이 페리어리가 주장하는 혁신이다. 디자이너는 과거의 관점이던 디자인되는 '물체의 물질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물체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들' 즉, '의미의 전달(communication)'에 디자인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⁴⁾ 이로써 새로운 21세기의 신인본주의시대에서 물질이 정신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복잡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물체의 세계에서 물체가 인간들의 삶과 생각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는 사실에 생각을 모아서 이 연구의 테두리를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카오스이론에 입각한 관점으로 과거를 되돌아 보고, 특히 의자와 사회사이의 변모해온 관계를 찾아내 본다.

의자가 사회적 지위,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졌던 고대사회에 거슬러가서 이 연구의 시점을 정하며 상징성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중심을 둔 사례연구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되는 의자들은 단순히 그 기능적, 미적, 구조적, 기타의 우수성의 관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특정의자의 디자인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디자인의 의미를 어떤관점에서 가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II. 의자의 기본구조와 부위별 명칭

2.1 의자의 기본구조

의자 제작과정에 비추어 네가지 기본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골격(frame)을 형성하는 주부재로 구성되며, 목재, 합판, 플라스틱, 금속등과 함께 때로는 갈대, 유리, 유리섬유, 세라믹, 종이등이 쓰이기도 한다. 특히 1851년 산업혁명이후와 2차세계대전후 플라스틱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재료와 형태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탄성(spring)을 형성하는 부재로서 주로 좌판, 등받이를 중심으로한 용수철(coil spring), 처짐방지 용수철(no-sag spring) 등과 고무밴드의 엮임(rubber band wedding)등이 사용된다. 현재는 골격재료 자체의 탄성을 구조적으로 응용한 경우도 많다.

셋째, 방석(padding)을 이루는 부분으로, 과거에는 식물류(마치물,머슬린등)와 동물의 털(말털,깃털), 섬유(이끼,야자섬유, 목화솜)를 썼으며, 현재에는 인공합성물인 스폰지류(rubber,foam,latex foam,poly foam)등 필요형태로 압축, 성형가능한 액화고무스폰지와 폴리우레탄이 대량생산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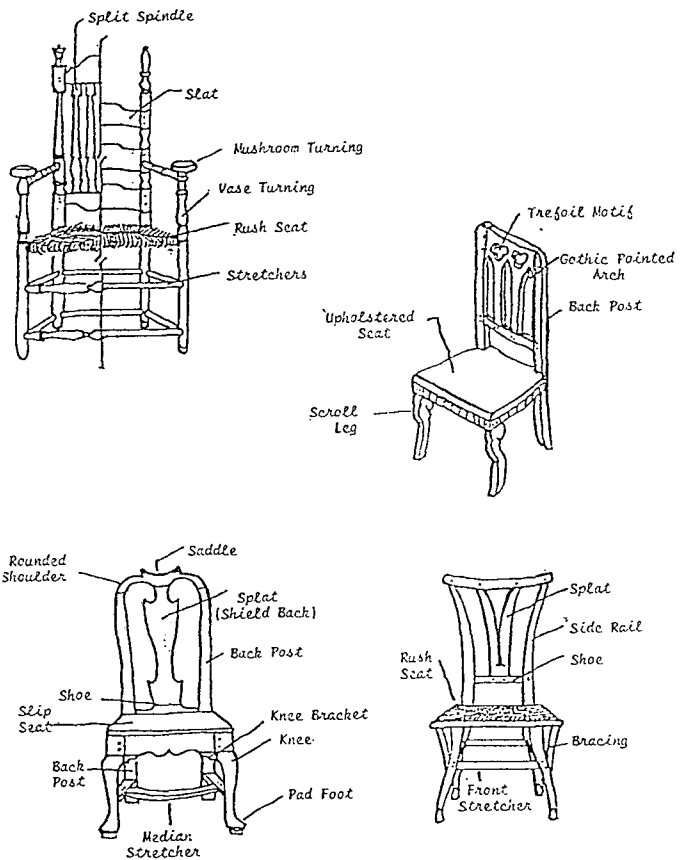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방석위를 덮는 피복(covering)은 직물, 바닐, 가죽등이며, 접착제,얇핀, 스테이플등으로 골격부분에 고정된다.⁵⁾

위의 네가지 기본구조는 현재의 의자 디자인의 재료상의 발달로 인해서 세분화되지 않고 한가지 혹은 두가지 재료로 구조의 부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 기본형태 또한 좌판, 등받이, 네다리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다.

제작과정상 마감재가 마지막과정에 있으나, 흔히 목재마감과 금속재 마감정도를 논한다.

2.2 부위별 명칭

의자의 기본부위별 명칭들은 서구의 중세시대로부터 산업혁명이전까지의 대표적의자의 유형 네가지 스케치로서 도식화 하였다. 물론 영국의 산업혁명전후에 이르면 의자의 부위별 장식 형태부류가 무수히 많아지고 각명칭을 보다 분화 시켜 구체적으로 부르게 되었으나, 여기서는 이집트시대 이후 가장 일반적인 의자의 유형으로 심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것들을 택했다.(그림1)



(그림1) 의자 부위명칭

2.3 분류

의자의 명칭은 어떻게 용도를 나누느냐와 생산방법, 기능등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크게 용도에 따라서 등받이 없는 의자(stool), 등받이 의자(side chair), 팔걸이 의자(arm chair), 안락 의자(easy chair)로서 형태별 분류되며, 생산방법에 의해 대량-생산제 의자

3) A.C.Ferrieri, 전게서, p.27

4) A.C.Ferrieri, 전게서, p.9

5) Mario Dal Fabbro, 의자디자인과 구조, pp.7-8

(mass-produced chair)와 주문제작의자(custom-made chair), 사용자에 의해 공공용 의자(public chair)와 주거용 의자(domestic chair)로 분류되어진다. 사용공간에 따라거나 특정기능의 내포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

III. 디자인의 의미와 사회적동기 변천 (고대-현대)

	디자인 의미	사회적 동기	사 조	의자유형
I. 고대-중세	상징성 Symbolism	군주제도(monarchy)와 종교관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가시적 형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	고대 이집트, 고대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옥좌 x-스툴
	산업성 Industrialism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과 기계기술(machine technology) *새로이 사용가능한 재료에 대한 관심(유리, 스틸, 합판)을 보여준다.	이르누보	곡목과 적층합판 의자류
II. 근대	기능성 Functionalism	대량생산기술(mass production technology) *공학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구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비우하우스, 모더니즘	캔틸레버의자 튜브라스트의자
	물질성 Materialism	플라스틱합성기술(plastic technology) *플라스틱 합성기술의 발달로 조소형태의 탄성(plasticity)과 자유형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	이탈리아디자인 (엘피스 그룹)	플라스틱의자류
	예술성 Aesthetics	구조주의 이론(structuralism)과 언어 *언어에 대한 구조주의 철학적 분석의 영향으로 은유적 의미(metaphor)와 색채(color)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팝아트와 카네틱아트, 조형주의, 포스트모더니즘	
III. 현대	관계성 Relations	생태계(ecology)와 환경보호 운동 chaos 이론 *chaos 이론 발견과 생태계에 환경과 인문관계에 관심을 보여 준다.	해체주의, 환경디자인	

IV. 의자 디자인의 상징성: 고대-중세

의자디자인사에서 상징성이 부각되는 이면에는 고대-중세 역사(이집트-르네상스)속의 군주제도와 종교라는 이원적 권력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구가 거의 없었던 고대 주거에서 가구는 부유한 자의 신분('FURNITURE WAS A STATUS OF THE RICH')⁶⁾ 이었고, 의자는 명예의 상징으로 고귀한 신분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소유주의 권력과 권력의 상징이다.⁷⁾

군주제도와 종교제도사이에서 어떤 세력이 우위에 서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중심은 이동하였으며, 의자중에서도 옥좌(THRONE)에 앉는 자와 나머지 서있는 자 사이에서의 권력의 유무, 또는 계급의 차이는 뚜렷하며, 옥좌가 놓여진 방 안에서 앉을 수 있도록 지배자가 허락하여 줌은 곧 지위와 권력의 보장과도 같았다. 신분의 고귀함의 정도가 사용하는 의자디자인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곧 의자의 권위적 형태, 고급재료의 사용, 정교한 장식의 정도, 좌판의 크기와 높이, 그리고 등받이와 팔걸이의 부착, 그리고 발판의 사용으로서 시각화되었다.

4.1 이집트(Egyptian period:3000 B.C.-332 B.C.)

최초의 가구발달은 고대 이집트왕국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의 사회적 계급제도와 내세에서의 부활을 믿는 종교관에 의해서,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었던 왕(PHARAOH)은 내세를 위한 사후에 대비하는데 현세의 삶을 바쳤다. 사후의 주거인 분묘(마스타바와 피라미드)에는 불멸의 영혼(KA)이 누리게 될 내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왕 및 특권층의 무덤내부에 부장품으로서 가구를 포함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집트의 고온 건조 기후(연 강수량 100mm 내외)가 완벽히 보존시킨 목재가루류는 이집트의 고왕국(3000-2130 B.C.), 중 왕국(2130-1580 B.C.), 신왕국(1580-332 B.C.)에 이르기까지 발굴되어지며⁸⁾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정치적 정복의 시기였던 신왕국시대의 제작품이다.

통상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문화적으로도 황금기에 들어서며, 특히 식민지 영토가 확장되어 수입 사용가능해진 다양한 재료들이 활용가능해진다. 건축물과 실내, 가구류의 부흥과 발달이 이룩되며, 특히 군주의 권력을 실내의 공간속에서 시각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가구인 옥좌는 그시대 디자인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에서 함, 궤와 더불어, 지배적으로 발달된 좌석 가구류는 등받이가 있는 옥좌와 의자, 그리고 등받이가 없는 스툴의 두 형태로 나누어지며, 고 왕국시대의 시작과 함께 보여진다.

사실상 B.C.5200년경부터 시작하여, 멸망하는 시점의 알렉산더 대왕 침공(B.C. 322)이 있기까지 거의 5000여년동안 지속된 고대 이집트 왕조는 고왕국시대의 헤테페레스 여왕(HETEPHERES, 4TH DYNASTY, 2565-2440 B.C.)의 가구류와 신왕국시대에 속한 투탄카멘(TUTANKHAMUN, 18TH D, 1351-1347 B.C.)의 가구류를 비교해 보면 디자인 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사회의 보수성이 반영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물론 지리적으로 외래문화의 침투가 어렵도록 영토가 사막과 나일강으로 에워싸여 있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왕족, 평민, 노예로 삼분되는 이집트의 사회적 계급구조 또한 가구의 제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구제작을 담당한 예술가, 장인들은 노예계급에 속했고,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분업으로 가구의 각부위를 제작하였으며, 정교한 목재구조의 접합법(MORTISE AND TENON JOINT 등)을 구사하였으며 수천년간 그 기술을 전수 시킨다.

이집트인의 종교관에 의해서 그들의 현세의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으므로, 일상생활용 의자는 지배계급의 것도 매우 낮은 높이의 정방형 등받이 의자와, 스툴이었으며 골풀, 가죽끈으로 엮은 좌판, 각진 다리와 쪽널(SLAT)등받이를 가진 소박하고 견고하며, 단순한 디자인이었다.(그림 2)

팔걸이가 있는 의자는 의식용으로만 귀하게 사용되었고, 이러한 옥좌의 대표적인 예로서 투탄카멘왕의 금도금 목재의자를 들 수 있다.

6)John Kurtich, 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p.306
7)정복상.김상권, 가구디자인,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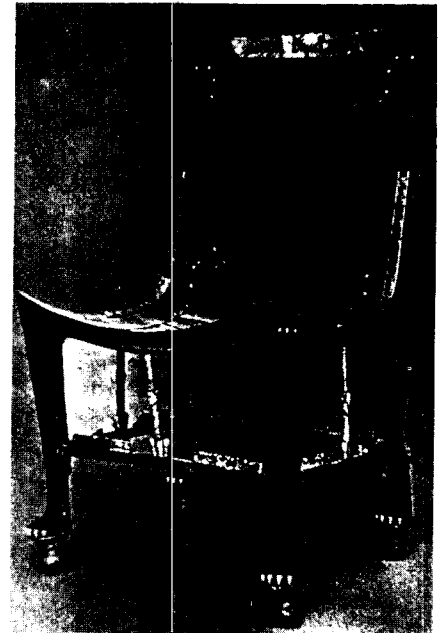
8)John Kurtich, 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p.306
9)John Kurtich, Garret Eakin, 전계서, p.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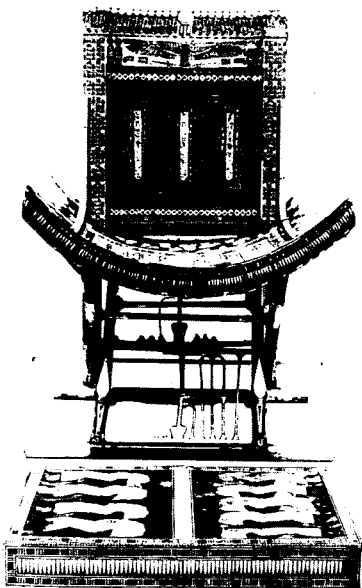
〈그림2〉 이집트, 나무의자
신왕국 X V III - X X X 왕조, 1580 - 332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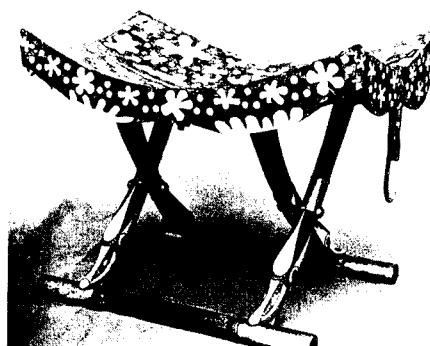
〈그림3〉 이집트, 의자등받이 튜탄카멘 분묘부장품



〈그림4〉 이집트, 금도금된 향나무의자
1366 - 57E.C. 튜탄카멘 분묘 부장품



〈그림5〉 이집트, X형 접는 스톨, 흑단에 상아상감, 금도금 1336 - 57B.C. 튜탄카멘 분묘 부장품



〈그림6〉 이집트, X형 접는 스톨, 흑단에 상아상감, 도금 1366 - 57B.C. 튜탄카멘 분묘 부장품



〈그림7〉 그리스, 클리스모스(Klismos) 의자, 헤르쿨레스 묘석부조 400B.C.

튜탄카멘왕의 팔걸이 있는옥좌는 분묘 부장품으로 제작된 것임을 짐작케하는 왕과 왕비의 생전모습과 실내광경을 등반이에 묘사하고 있다. 상아, 흑단, 준보석으로서 사용한 정교하게 상감 세공하고 조각된 목재 널판(WOOD PANELS)등반이가 있으며, 여기에 양각된 그림에는 튜탄카멘왕이 높은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발받침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고, 옆에 왕비가 서있는데, 왕과 왕비 머리위 등반이레일(RAIL)에는 신격화된 왕권을 상징하는 태양이 햇살을 비추고 있다. 등반이 조각속의 왕이 앉아있는 옥좌에서 볼수 있는 의자다리는 후기에 유행한 사자다리와 발톱이(초기에는 황소다리와 발굽이었음) 작은 나무토막위에 놓인 이집트기구 다리의 특징을 보여주며, 나중에 유럽가구에서 동물다리(animal leg) 형태의 전형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볼수 있다. 이집트의 옥좌는 발받침과 함께 사용될 만큼 높았으며, 이는 안락함이나 편리함 같은 일상적 기능과는 관계없이, 오직 왕권의 상징임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으로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수있다.〈그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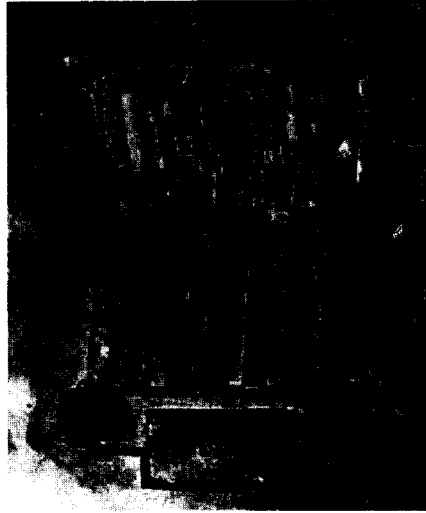
이집트의 좌석기구중 특기할 만한 것인 x-형 다리를 가진 접는 스톨형태의 옥좌는 서로 교차하는 다리중심에 금속 조임못이 부착되고, 발부분은 오리의 머리가 상아로 상감 조각되었다. 이집트의 x-자형 접는 스톨은 골풀, 가죽띠를 엮은 좌판을 가졌으므로, 인체곡선과 하중을 수용하는 탄력성이 있어 안락하면서도 동시에 고온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통풍성도 겸비한 기능적인 의자였다. 의자가 극히 귀하던 시대에 의자주인과 함께 이동이 용이하고, 안락함도 갖추었던 x-자형 접는 스톨은 실제로 왕이 항상 사용하던 옥좌였음을 알수있다. 더불어 사용하던 발판(foot stool)에 이집트의 적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새겨져 있어, 고도의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준다.이러한 x-자 형태의 접는 스톨은 유럽스톨의 전형이 되며,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앉는 의자로서 권력의 상징화됨을 볼수 있다.〈그림5,6〉

4.2 그리스(Greek Period : 800 - 323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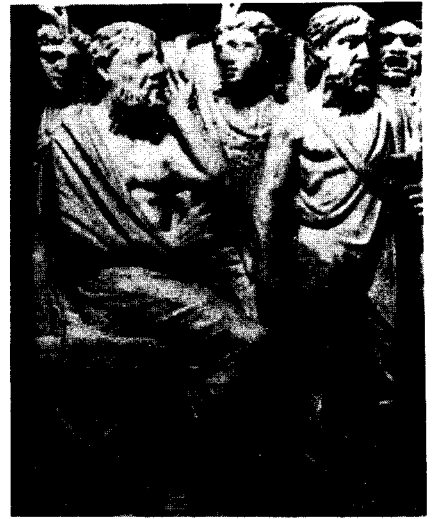
가장 그리스적인 의자로 꼽히는 클리스모스(KLISMOS)는 앞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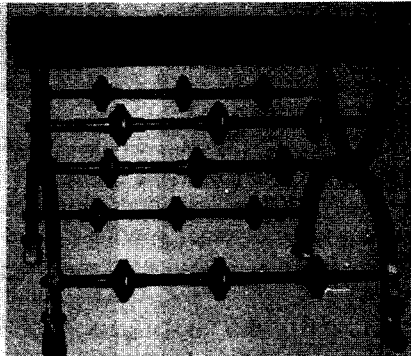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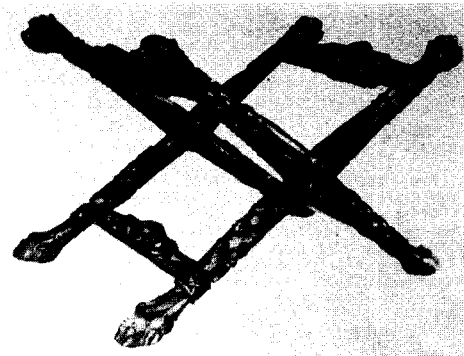
〈그림 8〉 그리스, 클리스모스의자
500B.C. 대리석부조



〈그림 9〉 로마, 100A.D. 오타살리우스 오페이누스 묘비
행정관의 셀라큐룰리스(Sella Curulis)



〈그림 11〉 로마, x-형 의자,
250-60A.D. 7인의 현자 석관 부조



〈그림 10〉 로마, x-형 접는 스톨과 철제 x-형 스톨



〈그림 12〉 그리스, 클리네(Kline)
475-450B.C. 항아리의 그림

휘어진 다리의 우아한 긴장된 곡선으로부터 빼어난 형태미와 수학적 비례감각, 그리스의 기하학적 정확성과 정밀한 제도기술을 읽을 수 있으며, 단위규격으로 제작된 각부위의 구조적 접합의 결정체이다. 불필요한 장식이 일체 없는 의자의 순수기능자체(인체하중지지,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를 구조가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인의 예술관을 읽을 수 있다.¹⁰⁾ 〈그림 7,8〉

그리스인들의 건축, 조각, 도자기예술등에서 처럼 재료로서 직접 표현되어진 그리스의 가구는 종류(의자, 스톨, 카우치, 탁자, 함)는 소수였으나 완벽함에 이르도록 유형들이 계속 발전되어 졌다. 그들이 믿었던 신을 표현한 방법, 그리스인의 우주관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플라톤은 "천지를 창조한 신의 사색으로서 구성된 형은 완벽한 법칙의 실제적 원리인 균제, 비례, 조화가 적용되어 장식을 이루고 있다. 즉 장식이란 신의 존재의 이미지가 물질화되고 형식화된 것이다." 라고 하며 질서를 설정하고 대상을 돋보이게끔 '장식'이란 의미에 '질서'를 내포시켰다.¹¹⁾

페리클레스 통치하의 아테네는 그리스문화의 전성기를 이룩하였고, 개인의 인간적 자유를 향한 이상이 싹트고 인간의 지성, 이성적 질서를 추구하여 '미'의식을 발달시켰다. 지적교육과 신체단련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인체치수에 근거를 둔 크기와 비례, 인간적 척도가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가볍고 견고하여 이동하기 쉬웠고, 비공식적인 거실공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클리스모스는 고대 그리스인의 가식없는 안락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의자였으며 그리스 사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사랑하고 철학, 수학, 과학과 의학을 논하던 그리스시민의 고귀함과(단, 여기서 '시민'은 노예계급을 제외한 계층으로서 현대민주사회의 시민과는 엄밀히 차이를 둔다.)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대그리스 도시국가와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 문화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4.3 로마 (Roman Period : 509 B.C. - 476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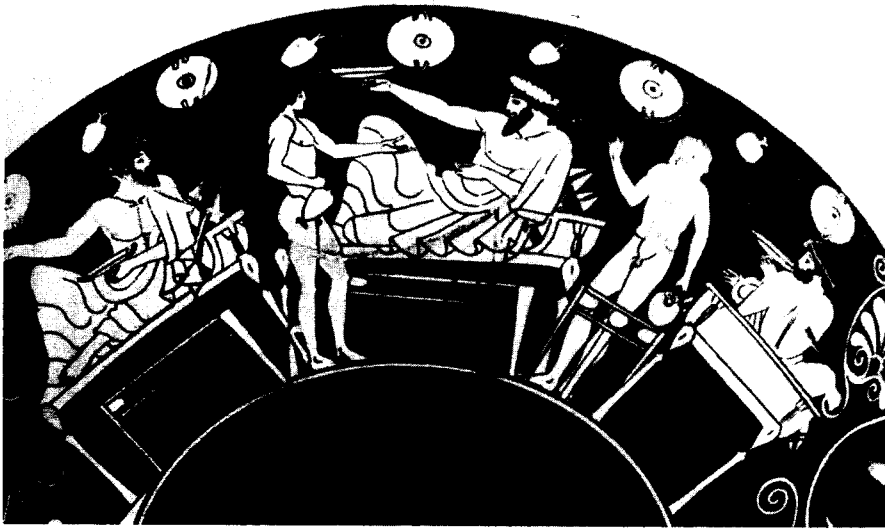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인들이 페리클레스 통치시대였던 황금기를 거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의 그리스 통일과 영토의 확장(이집트, 소아시아, 페르시아, 인도북부)에 힘입어 전파시킬 수 있었던 그리스 문화는 동서양문화의 합일을 이룬 헬레니즘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스를 지배하게된 고대 로마제국에서 그 시대한 영향력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인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혹은 발명하여 완벽에 가깝게 발전시킨 소수의 가구유형들은 로마에서 A.D.4C까지도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 가구류는 로마 가구류의 표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의 의자중에서 원로원 의원 같은 지배 계층이 사용하던 셀라큐룰리스(sellacurulis-x자형 다리의 스톨), 바이셀리움(bisellium-2인용 스톨)은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은 x-자형 접는 다리 형태를 보여주며, 로마의 공화정시대, 제국시대의 권력층이 사용하던 정치적 상징인 의자이다.〈그림 9,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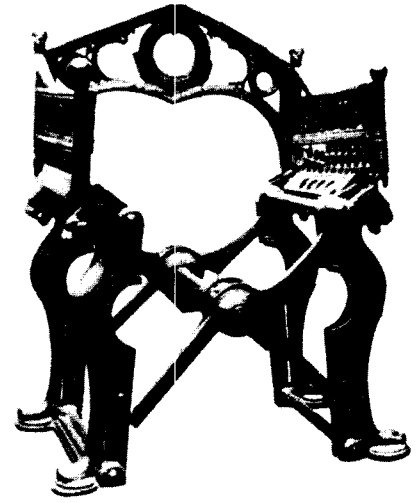
공화정시대(509-27B.C.) 동안 원로원의 성립, 지중해 해상권의

10)John Kurtich.Garret Eakin, 전제서, p.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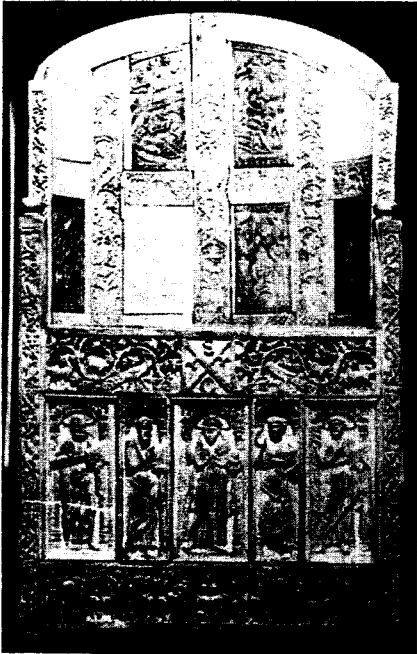
11)E.H.Gombrich, The Sence of Order,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Decorative Art, p.67



〈그림 13〉 로마, 렉투스(Lectus)와 크레피조이드 테이블(Trapizoid Table)



〈그림 14〉 비잔틴, 다고버트의지(Dagobert)



〈그림 15〉 비잔틴, 막시미아누스 사교좌 600A.D.



〈그림 17〉 고딕옥자, 1500A.D.

장악, 즉 해상무역 경로의 확보로 인해 지배계층의 권력과 부가 확보됨으로서 사치스런 연회중심의 사회활동이 중요하게 되고, 오구스투스왕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로마제국시대(27 B.C.-180 A.D.)가 열리면서 가구류가 화려하고 걸치레적으로 발전한다.¹²⁾

높은 카우치(couch)의 폭신한 쿠션과 매트위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관습은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며, 그리스의 클리네(kline-동물다리와 소용돌이 혹은 백조머리형의 머릿장식)의 형태를 본딴 로마의 렉투스(lectus-청동과 상아로 머리와 다리에 장식)는 식사전용공간인 트리클리니움(triclinium)에 놓여졌던 점이 전용공간없이 이동사용되던 그리스시대와 달랐다. 3개의 높은 렉투스들이 U-자 형태로 배치되어져서 장시간 식사시의 편안함과 대화, 그리고 중앙식탁의 요리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노예들이 음식을 나를 수 있도록 하였다.¹³⁾ 고대 로마의 렉투스(lectus)는 그 소유자가 지배계층과 연회중심의 사회활동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12, 13)

12)정복상.김상권, 가구디자인, p.34

13)John Kurtich.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p.310

4.4 중세시대 (Medieval Period:476 A.D.-1400 A.D.)

1. 초기 중세시대 (800-1200 B.C.)

2. 고딕 시대 (1200-1400 B.C.)

로마제국의 멸망이후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긴 기간(4C-14C) 동안 서구유럽의 가구는 그예를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그이유는 기독교의 득세, 비 종교적인 예술의 통제, 그리고 지배계층의 유랑생활등 세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이유는 당시의 종교와 정치사이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동로마제국시대 이후 기독교와 교황의 권력이 우위에 서서 서구 유럽각국의 군주의 정치적 제반 활동, 전쟁과 지배계층의 결혼 윤희에 까지 관여하게 됨으로써 중세의 모든예술은 종교적 규범, 제약아래서 기독교정신을 표출하는데 집중되어졌다.곧 종교적이지 않은 예술의 창조 자체가 위협을 받는 순수예술의 암흑시대가기도 했다.

둘째, 예술의 자유창작정신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반면, 이 시대의 예술은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한 종교적 성화, 종교서적의 필

사본 제작, 특히 교회건축에서 극치에 이르렀다. 현존하는 대표적 의자류도 주로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사제를 위한 의식용 사제좌, 그리고 왕의 의식용 옥좌(throne)이며, 교회건축 구조와 장식을 적용 함을 볼 수 있다.(또한 다수의 가구가 종종 수도원에서 수사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건축사적으로는 비잔틴 양식(330-1453 A.D.), 로마네스크 양식(800-1500 A.D.), 고딕 양식(1150-1500 A.D.) 세양식으로 구분되어지나, 가구의 역사에서는 흔히 중세시대를 초기 중세시대와 고딕시대로 양분한다.

동,서양 양식의 혼합을 이룩하였던 기독교중심의 동로마제국시대에서 이룩된 비잔틴양식의 의자중에는 큐룰(curule)과 다고버트(dagobert)의자, 성 피터(St.Peter)의자, 막시미아누스 사교좌(司敎座) 등이 현존 한다. 큐룰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양식을 거쳐 이어져온 x자 모양의 접는 stool로서 상징적 흔적을 이집트식의 사자머리, 발톱과 돌고래 장식에서 볼 수 있다. 성 피터 의자는 당시의 비잔틴(Byzantine)건축양식을 등받이에 조각하고 금판을 덮은 목조의자이며, 다고버트의자는 더이상 접을수는 없으나 근원이 접는 스툴에 있는 7C에 제작된 청동도금의자이다.특히 비잔틴예술의 특징인 동양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는 막시미아누스옥좌는 상아로 된 동,식물 아라베스크 띠장식조각과 성인들의 등신대 조각패널이 의자의 등근 등받이와 옆판, 좌판 아랫부분에 새겨져서, 마치 이차원적인 성화나 필사본을 삼차원의 입체적 양각으로 되살린듯하다.(그림 14,15)

고딕양식의 옥좌에서도 섬세하고 수직적인 고딕건축의 요소들이 축조되어 의자의 등받이, 좌판아랫부분에 부조, 투각장식으로 적용되어졌으며 기본적인 옥좌의 구조는 사각형좌판과 네다리, 그리고 수직 등받이로서 비잔틴 양식옥좌와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전통적 옥좌유형은 그 직립형태로서 상징적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고딕양식의 가구 장식과 문양에서 두드러진 형태로는 첨두아치(pointed arch), 매듭 모양장식(tracery), 삼엽과 사엽장식(tri-and quatre-foil leaves) 그리고 첨두아치의 상단부와 등받이 양옆의 수직적 상단부에 흔히 붙이는 첨탑장식(finial) 등이 천주름장식(linen fold), 도금과 함께 사용되어졌다. (그림 16)

기본구조위에 부가된 장식적 조각이 있는 이러한 중세의 의자에서, 당대 스콜라(scola)철학자들이 건축미를 구조의 미와 장식의 미로 구분하고 장식을 천지창조와 함께 무(無)로 부터 창조된것으로 보았던 신학적 해석을 찾아 볼 수 있다.¹⁴⁾

중세시대 가구의 현존하는 예를 찾기가 힘든 이유중 세번째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 위한 유랑생활을 들수 있다. 초기 중세시대는 기후또한 현재보다 험하였고, 당시의 서유럽의 왕과 영주들조차 수많은 가족(영주의 직계가족, 친지, 부하와 군사, 하인들과 가축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식량이 있는 곳으로, 계절마다 다른 영지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으므로 이시대의 가장 유용한 다목적 가구는 이동하기 쉽고 튼튼한 궤(chest)위주였다(침대,의자,탁자 등등 다양도로 사용됨). 영지의 성에 남겨지는 것은 자연히 불박이 가구 혹은 건축 일체화 가구로서 이동하기 어려운 무거운 가구는 종종 벽과 바닥등에 고정, 부착되어져 부재시의 도난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당시의 방어용 성 건축물의 두터운 벽은 그속에 선반과 불박이 벤치등을 설치가능케 했다.따라서 중세시대의 의자로서 현재 의자디자인론에서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주로 옥좌이며 교회와 성에서 사용되던 것들로서 보다 소중히 취급되었고 따라서 보존되어진 종교(정치)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중세(15C 고딕시대)의 옥좌는 천개(canopy)달린 높은 의자로서 성의 거대한 중앙홀에서 작은 단위(platform)에 높이자리잡고 있었

고 영주가 장방형 무거운 탁자들레의 스툴과 벤치에 앉은 그의 가족 친지 부하들을 한눈에 지켜 볼수 있었다.때로는 몇몇 이런 의자들이 '조립식 의자(joined chair)'로써 분리되어 가족 포장케이스에 넣어 질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져, 의자주인이 그의 저택안에 이동을 할 때 동반됨으로서 주인의 지위에 적합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¹⁵⁾(그림 17)

4.5 르네상스 (Renaissance, 1450-1600A.D.)

1. 이탈리아 (1500-1600 B.C.)
2. 프랑스 (1550-1600 B.C.)
3. 영국 (1500-1650 B.C.)

15c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정신적 본질은 인간성 회복, 중세 기독교의 종교적 속박에서 인간성을 해방시키는 인본주의 정신에 있었다. 예술에서도 신학적 해석에서 벗어나 미와 장식사이에 구분을 행하였고, 합일된 미의 추구가 주 관심사 였다.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저서 <건축 심서(De Re Aedification, 1450)>에서 "모든 사물에 있어서 중요한 장식은 '모든 부적합한 것으로 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미는 모든 부분의 합법적 일치이다. 장식은 미를 뒷받침하고있는 희미한 빛으로부터 미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미는 내적 본성에 잠겨있는 반면, 장식은 가공적 가상과 외적인 부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건축, 그리고 예술에서는 신과 자연이 하나되는 통합된 조화로서 묘사되며 '합법적 일치'의 예를 고대로마 건축과 장식에서 찾고자 하였다.따라서 고전적양식(Classic style)의 모방과 응용이 두드러진점이 르네상스양식의 특징이다.바로크(1600-1700 A.D.)와 로코코(1700-1770 A.D.)시대에 까지 '조화와 클래식'이라는 주제는 계속되어졌다.이탈리아의 인본주의적 르네상스 정신은 지배층이 권위의 과시로서 사상을 독점하는 탓에 서민층에 까지는 전해지지 못했고, 여전히 지배층의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가구에서 서서히 그 영향력을 보여준다.

르네상스는 15C 북부 이탈리아의 교회 인테리어로 부터 시작되어 주거용 가구에 주요한 변모를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유럽 그리고 영국에 까지 영향력을 뻗친다.¹⁶⁾ 프랑스는 프랑수와 I 세 시대, 영국은 엘리자베스 I 세 시대가 전성기 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의 가구는 친퀘첸토(cinquecento)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초기 르네상스의 가구류는 지역색이 뚜렷하였으나, 체르토시아(certosina)는 롬바르디아지방 상아 삼감가구이며, 인타르시아(intarsia)는 베니스의 채색된 나무에 아라베스크 문양을 삼감한 가구이고, 플로렌스 지방가구는 황금도금장식 부활이 그 특징이었다.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간의 과도기(15C)였던 초기 르네상스시대의 그리스풍 석고와 채색장식, 삼감으로 장식된 가구류들이 전성기에 이르러 점차 고대 로마의 고전적 문양의 조각장식위주로 변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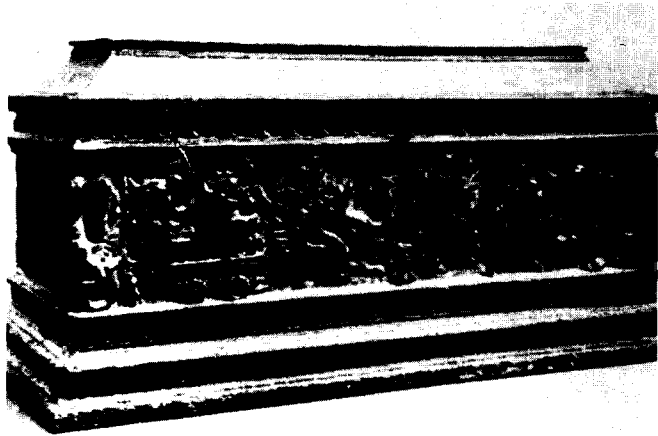
로마의 대리석 관(sarcophagi)을 모델로 한, 르네상스시대의 장식된 나무궤(cassone)는 크고 장중하여 중세적 요소를 어느정도 지닌 것으로 16c 이탈리아 주거의 가장 정교한 가구중 하나이며 매우 중요한 혼례함이었다.궤에 낮은 등받이와 양팔걸이를 부착시킨 일종의 소파(cassapanca)가 있으며.카사판키는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에서 발달된 의자류의 첫번째 유형이다. 영국에서는 이탈리아보다 추운 겨울 기후때문에 높은 등받이가 부착된 세틀(settle)에 문양(tuder roses, scrolls, dolphins, zigzags, interlaced strapwork, linenfold 등)이 조각되어졌으며, 높은 등받이 때문에 벽에 기대어 놓고 사용했다.(그림 18,19,20,21)

이탈리아 르네상스 의자의 두번째 유형인 사보나롤라(sav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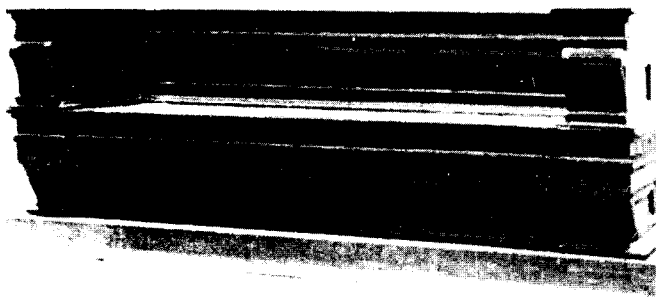
14)조영배, 근대디자인의 전환기적 시점에 있어서, 장식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지, 1994.No.2, p.41

15)Peter Johnson, The Phillips Guide to Chairs,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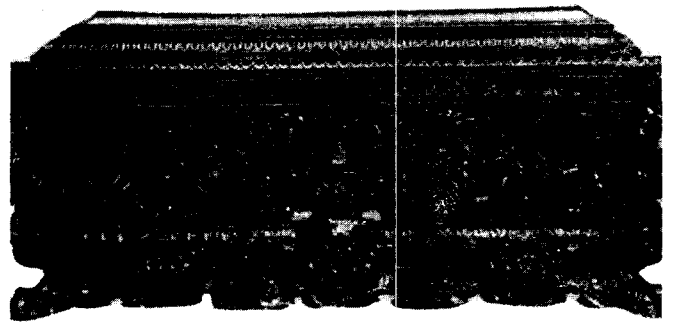
16)John Kurtich.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p.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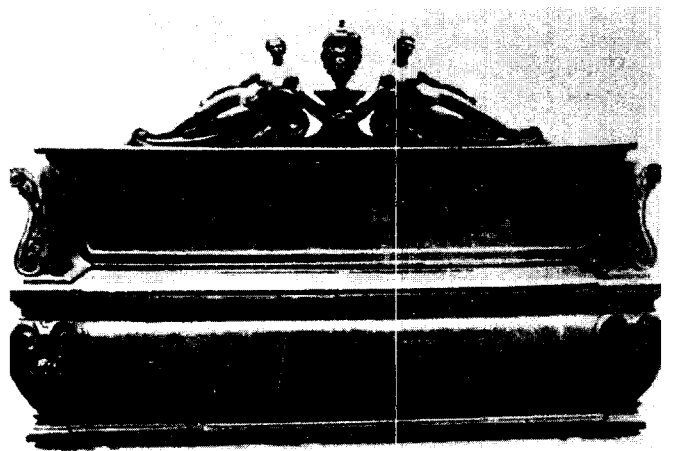
〈그림18〉 르네상스, 이탈리아 카손느 1475 A.D., 플로렌스.



〈그림20〉 르네상스, 이탈리아 카사판카 1550A.D., 플로렌스



〈그림19〉 르네상스, 이탈리아 호도나무 카손느(Cassone)



〈그림21〉 르네상스, 이탈리아 카사판카(Cassapanca) 1650~75A.D., 플로렌스

arola)의자는 고대 이집트의 x-자형 접는 스톨의 유형을 간직한 것으로서, s자형 굽은 나무조각을 조합한 낮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부착되고, 다리는 x자형으로 짜여져있다. 단테(dante)의자는 x-자형으로 교차되는 다수의 다리가 위로 팔걸이까지 연장되며, 팔걸이와 다리에 장중한 고전적 조각을 하였고, 등받이나 좌석에는 천이나 가죽등을 씌운것으로서, 사보나롤라 의자와 함께 고대의 이동식 옥좌이던 x-자 스톨이 르네상스 주거공간에 까지 사용범위를 넓힌 예이다. 16C 영국에서도 사용된 x-형의자는 접을수 있어서 이동이 용이한 장점 때문에, 영주가 저택에서 저택으로 여행하는 당시의 관습이 이끌어낸 유형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이집트 시대 이래로 이어져 온 상징적 의자의 한 유형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림22〉

세번째 유형으로서 스가벨로(sgabello)라는 식사용의자가 있다. 이탈리아의 주거에서는 고대 로마때와는 달리 식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없고 편리에 따라 방을 옮겨다니면서 식사를 하였고, 이는 르네상스의 의자의 이동의 용이성 덕분이었다. 스가벨로는 식사용의 가벼운 목조 의자로서 초기르네상스시기에는 세계의 판각다리와 팔각형 좌판으로 구성 되었고, 후기에는 두대의 판각다리와 투각등받이에 세로 널이 부착 되었다. 영국에서 16c 동안에 발전된 의자중 세번째 것(turned chair)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시대에 가장 기본적 의자유형인 웨인스콧 의자(wainscot chair)가 되었다. 각 부분이 분리제작되고, 서로 맞추어 졌으며, 선반가공된 각부분(turning)은 손잡이 모양, 고리모양으로서 만들어 졌다. 세틀과는 달리 의자의 하부가 뿔려있고, 사다리꼴의 좌판은 당대의 넉넉한 품의 의상 유행에 맞추어 충분한 크기였으며,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진 등받이는 안락감을 더한층 추구하기 위함이었고, 네 개의 다리는 수평지지목(stretcher)으로 연결되었다. 이 의자가 'turned chair'라고 불리는 이유는 보통 앞다리 두 개

는 연속된 구근모양으로 절삭가공 되었으나, 두 개의 뒷다리는 네모의 단면을 가지는 평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약간 바깥으로 휘면서 s자 모양으로 앞쪽으로 낮게 경사진 팔걸이가 부착된 장방형 판자 등받이에 는 고대로마건축에서 본떠온 조각장식이 새겨졌다. 〈그림23〉

16c 중반에 이르러서는 x자형 의자는 독립된 호화로운 장식용 가구로서 발전되고 참나무(oak)로 만들어졌으며 정교한 조각이 되어있고, 전통적인 엮어진 좌판 위에 따로 분리 가능한 방석을 놓았다. 좀더 고급인 경우에는 쿠션을 감싼 직물(tapestry)의 섬세함과 맞 비교될 만큼 섬세하게 조각 되었다. 헨리 VIII세는 무수히 많은 x자 의자를 갖고 있었다고 하며, 당대의 넉넉한 옷차림 유행과 왕의 큰허리 치수에 가장 적합한 의자였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I세 여왕 통치하의 귀족들은 비싼 x자 의자를 주문하는 것으로서 서로 경쟁 하였는데, 이는 여왕의 사치스런 x자 의자류에 대한 취미에 의식적으로 겨루려는 의도였다.¹⁷⁾ 골격은 조각되고, 금박이 입혀지거나 채색되어져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x-자 의자의 인기는 영국 빅토리아시대에서도 여전하여 '햄릿(hamlet seats)'로서 거실(parlour)에 자랑스럽게 진열 되어졌다.

4.6 바로크 (Baro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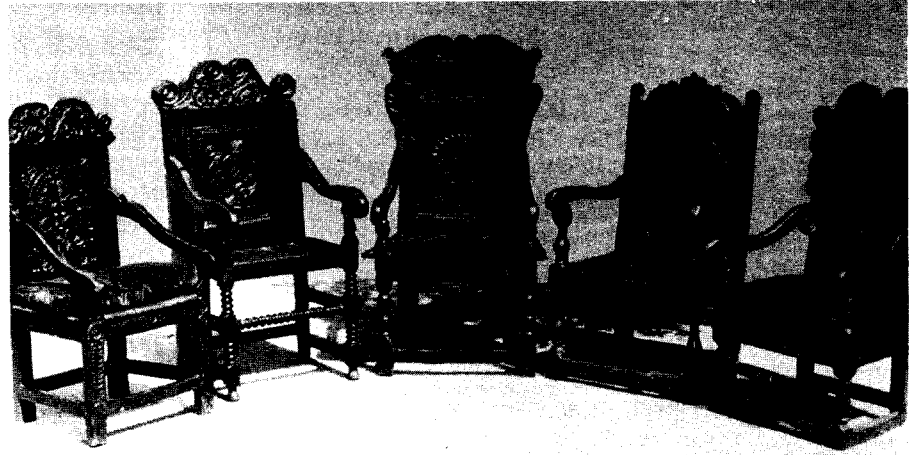
1. 루이 14세 양식(louis XIV V) 1643-1700 B.C.
2. 리전시(regency)1700-1730 B.C.

17c 후반-18c 초반까지 진행되었던 바로크 시대동안, 화려하고 강한 색채의 대비, 풍부한 문양과 장중한 기하곡면을 가진 조각장식등이 가구의 특징이다. 바로크의 시작과 전성기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17) Peter Johnson, The Phillips Guide to Chairs, p.19



〈그림22〉 르네상스, 이탈리아 베니스산 호두나무.
1650A.D., 단테(Dante) 의자



〈그림23〉 르네상스, 영국 5개의 참나무 의자.
1700B.C.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오랜 통치기간(1638-1715)과 일치하며, 유럽각국과 영국이 그 유행을 뒤쫓은 하나의 시대적 양식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루이 14세 통치기간동안 인테리어환경자체는 왕립가구 제조청(manufacture royale des meubles de la couronne)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한 장식예술의 거의 모든 부류를 망라한 생산품으로 채워졌다. 프랑스의 바로크양식은 국가기관에서 주도하였다는 점이 고대 이집트에서 근 오천년동안 노예들에 의해 한가지 양식의 가구류가 발전, 제작되었던 점과 비교되어 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의 양식을 창조하였고, 이것은 곧 "짐은 국가이다"라고 말한 루이 14세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샤를르 르 브룬(Charles Le Brun, 1619-1690)이 위 기관의 첫번째 책임자였으며, 베르사이유궁의 내부를 장식하는 일을 루이 14세로부터 부여받을 만큼 재능을 인정받은 디자인어였다. 왕실작업소에서 왕의 궁전들에 사용되던 모든 가구와 타피스트리, 장식예술품을 생산하여, 루이 14세와 그의 궁정을 명예롭게 하는 하나의 국가적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바로크 양식의 취향과 우아함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브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베르사이유궁의 거울의 방(Galerie Des Glaces, Versailles, 1684)이며, 235feet길이의 간공간이 17개의 아치로 된 유리창들에 의해 정원을 바라보고, 반대쪽 벽면은 루이왕의 유리공장에서 생산된 관유리들이 부착된 얇은 17개의 벽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울에 반사되는 도금된 키크 촛대와 세 열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등과 더불어, 브룬이 디자인한 순은의 가구들이 태양처럼 빛나는 왕의 영광을 보여주던 명백한 왕권의 상징이었다.

V. 고대-중세 사회의 의미변천에 대한 비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중세로 넘어가던 때는 종교적으로는 다신주의 시대(올림푸스 신)에서 일신주의시대(기독교)로 전환 되는 때였다. 그리스의 철학과, 가구, 건축을 포함하는 예술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주장처럼 '신이 이룩한 질서(ordos)가 내포된 장식을 통해 형(eidos)으로 형상화'하여, '신'과 '우주의 천상'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장식에 내포된 질서가 강조되었다.¹⁸⁾ 따라서 수학적 비례가 가장 주요한 장식 그 자체였으며 모든 예술적 대상의 완벽한 질서 추구로서 그 형태의 완벽함을 이루었던 원인이 설명될 수 있고, 로마시대보다는 순수한 종교적 의미의 형상화 추구 곧 완벽한 형태(선과 비례)의 의자하나에서

'신'과 '우주의 천상'을 재현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보다 인간주의 초기 민주주의적 체제를 이룩하고 실험하였던 소규모의 그리스 도시국가형태로부터 통일된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형태가 되면서는 인간의 안락과 쾌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상대적으로 종교적 순수성이 퇴색하여, 왕권 혹은 지배세력의 정치적 권력이 강조되어 형상화한 사치스런 연회문화가 식사용 의자의 가치상승으로 나타난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퇴폐적, 반 기독교적이던 로마제국의 멸망이후 일신주의적 깃발이래 강화된 종교권의 세력을 중세사회와 예술전반에 걸쳐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중세동안의 사회에 대한 종교적 억압을 벗어나고자 한 르네상스시대에서는,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한 인본주의의 득세로 일어난 고전적 미적 감각의 부활과 함께 진정한 주거용 가구디자인에로의 발전이 시작됨을 볼 수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 주도하의 바로크양식은 화려함과 국가 권력의 과시면에서 고대 이집트왕국, 그리고 고대 로마제국의 양식들과 비교할 만 하다. 가구디자인론에서 정치적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가구를 완성한 시대가, 루이 14세의 바로크라고 주장하여도 될 만큼 프랑스 바로크가구는 바로크 실내환경 더 나아가 바로크 건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재료, 형태, 제작기법에 있어 독립적으로 당당한 하나의 양식을 이룬점에서 상징으로서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 바로크 이전시대 가구제조업자들이 목수로 불리었으나 바로크시대에는 고품(固刑)목제가구 제작자와 단판(單板)과 삼감세공 제작자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가구제작 기술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시대였던 르네상스 양식가구와 비교하여 보면, 재료면에서는 순은으로 가구를 제작한 예도 있으나, 주로 호두나무를 사용한 점에서 르네상스시대에 주로 사용하였던 거친 느낌의 참나무와는 달리 격조있는 색상과 나무결을 나타냈으며, 그 조각장식 또한 르네상스의 고전적 형태(classic motive)와 문양들의 복제로부터 한걸음 발전하여 응용된 곡선형태가 기하학적으로 작도되어졌고, 보다 자유롭게 형태끼리 연결되어짐으로써 의자에 사용된 직물, 삼감장식과의 조화를 완벽히 이룩하였다.

VI. 상징적 의자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맺음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 부터 현재의 디자인 중심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의자'는 명백히 단순한 하나의 '앉는 물체'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해 왔다.

20세기 초반의 의자 디자인은 피터 스미스슨(Peter Smithson)이 저서 〈the cantilever chair (beverungen 1986)〉에서 표현

18) 조영배, 근대디자인의 전환기적 시점에 있어서, 장식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 1994.No.2, p.41

했듯이, 건축언어의 함축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구중에서, 의자는 가장 쉽게 옮길수 있으며, 마치 하나의 이동식 성소처럼, 그 시대 양식의 에센스이다... 영역을 이룩하는 행위는 우리의 옷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었을때의 행동과 자세로부터 시작한다. 하나의 의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감을 피부너머로 연장한다. 하나의 의자를 디자인할때 우리는 축소된 하나의 사회,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일들이 금세기에서 보다 더 명확했던 때는 없었다....Miesian city는 Mies의자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의자디자인은 안정성(stability), 안락성(comfort)등 오랫동안 기록된 법칙들을 따라야 했으나, 이제는 더이상 이런 법칙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인듯하다. 의자의 모든 요소에 대한 구체적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주위의 사회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대량생산, 새로운 재료등등이 추가항목이 되었고, 단순히 기능적 요소였던것이 공식적, 상징적 요소화가 되어졌다. 의자를 제작하는데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도 따른다. 20세기말인 오늘의 의자디자인은 시적 영감도 불러일으켜야 하며, 인간공학적 조건들을 충족시켜 기초적인 안락감의 요구에 맞춰야하고, 앉는 자세나 동작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중요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의자를 디자인하는 것은 문화적 행위이며, 의자와 환경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사람과 의상사이의 관계처럼 유행시스템의 일부로서 읽혀질 수도 있다.¹⁹⁾

과거의 현실(reality)이 하나의 원인의 산물이 아니고, 복합적 환경에 의해 주어진 제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래의 디자인에서는 과거의 디자인 대응책들이 무시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취사선택되어야 한다. 새로운 21C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의미'로서 변모되어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과정에서 의미없는 단순 복사의 단계를 초월하여 과거의 디자인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디자인이 왜,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최대한 알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접근한 디자인 연구와 역사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정복상·김상권, 가구디자인, 미진사 1993
2. Edward Lucie-Smith, Furniture Design History (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2
3. Frank Russell, A Century of Chair Design (현대 의자디자인 역사), 기문당 1991
4. Mario Dal Fabbro, Upholstered Furniture (의자디자인과 구조), 국제 1992
5. John Kurtich, Garret Eakin, Interior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1993
6. Anna Castelli Ferrieri, Interfacce della Materia, Domus Academy 1991
7. I.C.A., The Modern Chair,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1988
8. Peter Johnson, The Phillips Guide to Chairs, Premier Editions 1989
9. Sembach, Leuthauser, Gossel, Twentieth Furniture Design, Taschen
10. James Gleick, Chaos, Penguin Books 1987
11. 조영배, 근대디자인의 전회기적 시점에 있어서 장식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지 1994. No.2

(접수 : 1996. 2. 29)

19) I.C.A., The Modern Chair, pp.4-5